



서울특별시회 **소통과 유대강화로 약진하는**
백종윤 회장 **서울시회**

지와 덕을 겸비한 수장, 행복한 회원사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전국 시·도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기계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는 본회 부회장이며 전국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종윤 서울시회 회장으로부터 서울시회의 사업계획을 들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공사가 많은 윤창기공(주) 운영과 협회 일을 병행하느라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늘 바쁘게 뛰고 있는 백종윤 회장은 공부하는 협회, 친구같은 협회, 회원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서울시회를 이끌고 있다. [편집자 주]

**취임 및 상반기 운영소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3월 서울시회 회장에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서울시회 업무파악은 물론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향후 3년간 추진할 사업선정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짜는 등 협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의 협회활동이 무색할 만큼 협회에 대해 너무도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본회 부회장과 서울시회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역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협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전에는 알 수 없는 또다른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아는만큼 들리고, 아는만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협회에 대해 모르는게 너무 많다 보니 학습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협회 창립 역사부터 활동내용을 듣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전국에 6천여 회원사가 있지만 협회 활동을 하는 회원사는 100여개사로 전체의 10%가 안되는 회원사가 협회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사 중에는 2천억원 이상부터 100억원 미만까지 다양한 기성실적 규모를 갖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원사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책임을 맡고 있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소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조직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묵묵히 협조하고 후원하는 다수 덕분에 운영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10%도 안되는 조직이 이끌고 있는 우리협회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회원사가 침묵의 협조 속에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회 회장 출마 당시 “소통과 유대강화로 약진하는 서울시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가지 사항을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회원사 공사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협회 추진사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셋째, 서울시회가 기계설비건설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사 간 단결과 화합이 중요하기에 ‘소통과 유대’라는 큰 바탕 위에 운영방향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수주 구조와 매출액 규모 등의 차이를 떠나서 어느 한쪽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알리고 노력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서울시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귀를 크게 열고 열린 마음으로 가능한한 서울시회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회 회원 수는 전국 회원사의 약 20% 미만이지만 기성실적 면에서는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협회 전체 사업에 이바지 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 시도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와 공조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은 물론 서울시회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서울시회 자체 업무도 소홀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늘 초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정책 노력

서울시회는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회원사 밀착형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 회원사는 그동안 하도급을 위주로 시공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해를 거듭할수록 원도급 비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협회가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 덕분입니다. 특히 이상일 전 임 회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서울시장 명의의 분리발주 시행 공문 등의 큰 성과를 거두어 서울시를 비롯해 산하 25개 구청에서 분리발주가 많이 나오으로써 원도급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분리발주는 2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

깁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25개 구청과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주요 발주기관이 많습니다. 이 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주회원사를 방문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수주회원사의 역할이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본격 방문을 시작하여 9월 중순 현재 10여개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협회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회원사도 있는데 협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책임의식을 더욱 갖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회원사에게 좀더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본회에서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TF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발주기관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현장지원 및 점검 등 밀착관리를 통해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과 회원사의 성실 시공을 위한 다양한 업무추진은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정착에 큰 보탬이 되어 그 효과가 모든 회원사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MOVE 스쿨 사업

한계에 직면한 국내 건설시장의 돌파구는 해외시장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해외에 눈길을 돌려 몇 개의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인력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해외건설협회와 국토부가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으나 우리 입장에 맞는 인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시회는 해외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두원공대와 K-MOVE 스쿨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해외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32명이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K-MOVE 스쿨은 앞으로 회원사의 해외 전문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역할

단체 신재호 선생은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25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세대는 협회의 역사를 잘 알아서 선배들의 뜻을 계승·발전시키고 후배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운영위원회 시간에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협회의 역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의 협회생활을 했지만 연혁에 나타나지 않는 숨은 활동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가슴에 와 닿지도 않았고 그 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없기에 운영위원회 때 역대 회장님으로부터 협회에 관한 내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선배들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듣다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고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운영위원들도 이 시간을 통해 선배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공감과 함께 협회 및 선배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척박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던 선배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선배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협회와 업계를 발전시켜야겠다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는 말을 들 때마다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동락 초대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말씀 듣는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 중에 세상을 떠나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시회는 또 70세 이상의 대표회원 즉, 우리업계의 원로들을 대상으로 협회 발전방안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2세 경영인 모임

그동안 기계설비건설업을 대충 하다가 끝내겠다는 말을 들을 때면 서글퍼질 때가 많았습니다. 경영자가 적당히 하고 끝내려는 마음과 알토란 같이 키워서 물려 주려는 마음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통 30년 이상 영속하는 기업이 드물다고 할 만큼 기업운영은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시회는 회원사의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또 2세 경영인들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는 물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 '2세 경영인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1월에 발기인 대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회는 2세 경영인들의 멘토가 되어 자리를 잡게 해주고 활성화 시킴으로써 2세 경영인 발굴의 요람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올 때 '청출어람'이란 말을 씁니다. 2세 경영인 모임이 청출어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권역별 간담회 활성화

이상일 전임 회장님께서서는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몇분의 회원사는 협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줄 몰랐다면 대표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 가능한, 잠재된 회원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권역별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를 몇 번 하면서 협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열정적인 분들을 보며 협회가 끌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힘 닿는데까지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친교를 맺고 친구같은 협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비회원사 회원 가입 유도

서울시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수동형 협회에서 벗어나 비회원사에게 적극 다가가는 능동적인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규업체 등록 감소로 협회 가입 또한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협회의 회원사 확보 차원에서 비회원사 방문상담을 추진하여 회원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업체 중 37개사가 비회원사인데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10개의 비회원사를 방문하여 협회 알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회는 건산법에 의해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시공능력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면허가 등록되면 곧바로 찾아가서 자료도 주고 홍보도 하는 등 협회

의 존재를 알리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가입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이밖에 역대 회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수도권 기계설비 관련 대학 장학사업과 회원사 임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장학사업, 분리발주공사 시공품질현장점검 등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회원사에 당부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시회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사업은 결국 회원사의 수익과 경영개선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은 협회 및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회원사 한분 한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회도 회원사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등 외부적 어려움 외에도 저가수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를 자제하는 길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원사 모두가 스스로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우리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회원사간 제살 깎기 식의 무분별한 저가수주 경쟁이 지양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백종운 회장은?

- 1956년생
- 윤창기공(주) 대표이사(現)
-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기계과 졸업(5년제)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카톨릭경영자과정 수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운영위원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감사
-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現)